

25년간 방치된 팔복예술공장 새롭게 비상

문화예술단지 재탄생
'비일상의 발견' 주제로
오늘부터 내달 20일까지
18명의 예술가 작품 전시

지난 25년간 유휴공간으로 방치돼 있던 '팔복예술공장(전주시 팔복동 옛 쏘렉스 카세티에이프 공장)'이 문화예술단지로서 비상한다. 이를 위해 전주문화재단은 예술의 힘이라는 전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전시는 일상의 덩을 위한 '비일상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내달 20일까지 열린다. 오픈일은 오늘 오후 4시 팔복예술공장.

'팔복예술공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산업단지·폐산업시설의 문화재 생사업 일환으로, 여기에는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간 산업동력의 장소를 다시금 재조명하고자 하는 의미가 실려 있다.

이번 전시는 팔복예술공장에서 풍겨지는 낯설음, 과격함, 낯선 시·공간 이미지가 예술의 힘을 통하여 일상의 덩을 주는 잉여공간으로 재탄생되길 바라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18명의 예술가와 함께 새로운 이미지와 숨겨진 감성을 찾아 나선다.

비일상의 공간을 예술가들의 눈과 감



지난 25년간 유휴공간으로 방치돼 있던 '팔복예술공장(전주시 팔복동 옛 쏘렉스 카세티에이프 공장)'이 문화예술단지로서 비상한다.

성으로 읽어낸 '장소의 탐색'에선 11개 팀(12명의 작가)의 설치미술, 영상, 사운드, 페인팅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강현덕, 김형섭, 더비아트백 무브먼트(이승연, 알렉스), 박방영, 손용주, 이자연, 정승, 조해준, 탁영환, 한석경, 홍남기 작가가 등이 참여한다. 또 팔복동 제1산단 전체를 대상으로 작품의 소재를 넓혀 사진과 영상, 미디어로 표현하는 팔복아트 공간파노라

마' 전시에는 김병준, 김성민, 김혜일, 오태풍, 후즈(이아람, 문경자) 5개 팀, 6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21일 오후 5시30분 실내 공연장에서는 '프린지 파일럿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에는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공존하는 '이창신대금스타일', 전주 청년을 상징하는 밴드 '휴먼스', 그리고 전주 출신 세계적 비보이 그룹 '라스트 포 원'이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선보이는 무대를 갖는다.

전시기간 중에 관람객들은 주민 도슨트(해설사)에게서 작품에 대한 이해 및 공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다. 단체 관람의 경우는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jcf.or.kr)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cf_nun.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는 재단 063)283-9221, 공장 211-0288. /정해은 기자

가을 꾸준히 사랑받는 시집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때'

가을맞이까. 시(詩)와 수필이 서점가에서 팔려나가고 있다. 20일 인터파크서점 인터파크도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시·에세이(수필)의 판매량이 전월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인터파크도서 관계자는 "특정 분야를 견인하는 책들이 몇 권 있으면 그 분야 전체의 매출이 오르는 편"이라며 "도서 판매 자체가 정체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에세이분야 판매가 소폭이지만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꾸준히 팔린 시집분야의 스테디셀러는 어떤 책일까. 인터파크도서에 따르면 2012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판매된 시집 10권을 집계한 결과 1위는 김재진의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로 잘 알려진 저자가 저마다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삶의 길을 걷는 이들을 격려하는 90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2위는 류시화가 유·무명 작가들의 시를 묶은 '사랑하러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 차지했다. /뉴스



젊은 버스커즈들 군산에 모여 최강자 가려

오는 22~23일까지

전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버스커즈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강자를 가리는 축제가 군산시 개북동 예술의 거리에서 펼쳐진다.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군산시민예술촌 앞 예술의 거리 및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버스커즈 전국 최강자를 뽑는 '제3회 버스커즈 인 군산'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행사 첫날인 22일 오후 2시부터 자유버스킹을 통한 총 26개 팀의 예선전이 펼쳐지며, 23일 오후 2시부터 본선전출 8개 팀 중 전국 최고의 버스커를 뽑는 최종전이 열린다. 이번 대회는 서울·경기 17팀, 군산 5팀, 대구 1팀, 광주 1팀, 전주 2팀이 참여해 전국대회로서 면모를 갖추고 SNS로 모집한 청중평가단 24명이 심사를 통해 최강자를 뽑는다. /군산=문정곤 기자

거리공연과 함께 부대행사로 예술의 거리 곳곳에서 시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아트마켓이 운영되며, 북북 뒀는 예술가들의 발산 예술전시회도 함께 개최된다. 김봉근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젊음과 도전의 버스커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음악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공연의 장이 될 것"이라며 "근대문화도시 군산을 널리 알려 버스킹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역량있는 위촉교수 공개 모집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2017년 신규강좌를 진행할 역량 있는 위촉교수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도내 여성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회 트렌드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신규교육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모집기간은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모집분야는 빅데이터 통계분석(R), 코딩전문강사, 프리젠테이션스킬, 핸드니트 등 4개 과목 12과목이다. 지원자격은 해당분야 전공 및 수료자 혹은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출강하고 있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혹은 관련 분야에 상당한 정도의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신청방법은 지원서류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위촉교수 공개 모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10월 말경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jbc.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교육사업팀 063)254-3813~4. /정해은 기자

"어르신 초상화 완성품 만나요"

전북도립미술관-원주군 공동 창작스튜디오 지역 연계프로그램 성과물 도민에게 선보여

전북도립미술관은 원주군 공동으로 올해 8월부터 원주군 상권면민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던 창작스튜디오 지역 연계프로그램 '어르신 초상화 그리기' 성과물을 도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한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3시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 열리며, 전시는 11월 29일까지 이어진다. '어르신 초상화 그리기'에는 원주군 상권면민 소재 어르신 열 분과 함께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강성은 이기림, 유목연, 임희성, 박성수 미술가들이 참여했다. 참여미술가들은 지난 8월 창작스튜디오 인근에 있는 상신광 경노당 및 신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만남을 갖고 작품 활동을 펴왔다. 한 어르신은 "언제부터가 (구)상권면사무소가 밤마다 환하게 불빛이 쬐여 있어서 그동안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입주미술가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어르신 초상화는 전시가 끝나는 대로 참여미술가가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해 작품을 기증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원주 봉동풍물보존회' 민속예술축제 폐막공연 초청 화제

원주군 봉동풍물보존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민속예술축제 폐막 공연에 초청되어 1,000여명의 기립박수를 받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원주 봉동 풍물 굿은 봉동읍 용암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호남최대 풍물 굿으로 일제말기 우리문화 탄압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맥이 끊겼다가 10여년 전부터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로 풍물 굿에 참여한

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원됐다. 풍물굿은 술막이 굿으로 여름 비농사로 힘에 지친 농부들이 칠석날이나 백중날에 돼지를 잡아 술을 나누어 마시며 한바탕 놀이판을 벌인 마을 굿으로 마을의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단합을 다졌던 민속전통행사이다. 현재는 50여명으로 구성된 봉동풍물보존회에 의해 원형으로 재탄생하여 명백한

유지에 나가고 있으며,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폐막 공연에 초청받아 열연을 펼쳐 전국에서 온 1,000명 관객에게 기립박수를 받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봉동풍물보존회 관계자는 "사라져가는 마을 전통 중의 하나인 봉동 풍물 굿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원주=이중복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 <2016년 10월 21일>

<p>▷ 쥐띠 49년생: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운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60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니 컨디션 조절에 신경써라. 7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다. 놀라거나 예민해 질 수 있다. 84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p>	<p>▷ 소띠 49년생: 문서에 길성이 들어왔으니 계약이나 투자를 하라. 61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일이 성사되니 망설이지 말라. 73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나 운은 지나가는 것이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실이 생기니 나중에 풀린다.</p>	<p>▷ 호랑이띠 50년생: 특히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특별한 주의. 62년생: 정신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운. 74년생: 손아랫사람에게 베풀면 덕이 돌아오는 운. 85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기지만 서로에게 좋다.</p>	<p>▷ 토끼띠 51년생: 정신적으로 우울감에 빠질 수 있으니 외부활동에 집중. 63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는 시기이나 편법은 금지. 75년생: 구실수의 시비가 수에 따른다. 87년생: 금전거래는 불리하니 주의하고 손재수와 실물수</p>
<p>▷ 용띠 5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나 후반에는 잘 해결.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76년생: 오늘의 적이 곧 내일의 친구가 된다. 88년생: 뒷사람의 모진 말속에 도움 되는 답이 있다.</p>	<p>▷ 뱀띠 53년생: 외부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65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힘든 일이 생기니 운. 77년생: 외출을 하면 손재수가 따르니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 89년생: 복잡한 일을 하거나 두뇌를 많이 이용하는 일을 하기에 좋다.</p>	<p>▷ 말띠 54년생: 처음에는 화합하나 후반에는 어긋난다. 66년생: 동기인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이 생기니 운. 78년생: 식복이 따르는 운이나 과식은 금물이다. 90년생: 여성은 남성과의 다툼이 따르는 운.</p>	<p>▷ 양띠 55년생: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시비수. 67년생: 먼저 베풀면 후에 이익이 따르는 운. 79년생: 문서를 주고받거나 학업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좋은 운. 91년생: 동성보다 이상의 도움이나 조력을 구하라.</p>
<p>▷ 원숭이띠 55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66년생: 문서를 잡고자 하거나 계약할 때 좋은 운. 80년생: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포기하지 말라. 92년생: 현재 상황을 현상에 비해 과하게 받아들이라.</p>	<p>▷ 닭띠 57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69년생: 소유했던 사람을 찾으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운. 81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실이 생기거나 화가 생긴다. 93년생: 금전운이 올라가나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화.</p>	<p>▷ 개띠 49년생: 동기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58년생: 인덕은 버리지 말아야 하는 운.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70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원형도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82년생: 상황이 변하여 놀라거나 힘든 일이 생기니 미리 예방.</p>	<p>▷ 돼지띠 47년생: 뜻이 맞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운. 59년생: 계약하거나 좋은 문서를 얻을 수 있는 운. 71년생: 뜻하지 않게 이성으로 인해 오해받을 수 있다. 83년생: 작은 욕심은 이루어지나 큰 욕심은 화를 부르니 주의</p>